

2022년 4월 11일(월) 석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통신·방송·인터넷은 4월 11일(월) 06:00 이후 보도 가능



중소벤처기업부

보도자료



• 문의 : 제조혁신정책과 김민규 과장(044-204-7250), 홍승한 사무관(7252)

대기업·공공기관과 함께 지능형공장(스마트공장) 구축을 지원합니다!

- '22년 대중소상생형 스마트공장 지원사업 도입기업 모집 -

- 삼성, 엘지(LG)전자, 한수원 등 대기업·공공기관(주관기관)의 도움을 받아 지능형공장(스마트공장)을 구축할 중소기업(도입기업) 모집
- 1차로 선정된 6개의 주관기관별 계획에 따라 과제 접수를 시작하고 (4.11~), 향후 주관기관 확대에 따라 도입기업 지속 모집 예정(연간 1천개사 이상)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권칠승, 이하 중기부)는 '대중소 상생형 스마트공장 지원사업' 도입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지능형공장(스마트공장) 구축을 지원하는 '주관기관(대기업, 공공기관 등)'은 지난 1월부터 이미 모집하고 있었으며(6월말까지 수시모집),

1차로 삼성(삼성전자, 삼성전기, 삼성SDI), 엘지전자(LG전자), 한국수력원자력, 한전케이디엔(한전KDN), 한전케이피에스(한전KPS), 부산항만공사 등 6개 기관의 참여가 확정됐다.

한편, '도입기업' 모집은 주관기관별 계획에 따라 각각 진행되며, 삼성과 엘지(LG)전자가 4월 11일(월)부터 모집을 시작하고 한국수력원자력, 한전케이디엔(한전KDN), 한전케이피에스(한전KPS), 부산항만공사 등 나머지 4개 기관도 순차적으로 모집한다.

해당 사업의 지원방식은 정부와 주관기관의 지원 비율에 따라 크게 ▲유형1(기초, 고도화1, 고도화2)과 ▲유형2(소기업전용)로 나뉜다.

유형1은 정부지원금 비율이 최대 30%, 민간부담금(주관기관+도입기업)의 비율은 최소 70%이며, 정부지원금은 고도화 단계에 따라 기초 4.2천만원, 고도화1 1.2억원, 고도화2 2.4억원을 상한액으로 지원한다.

민간부담금은 구체적으로 대기업 등 주관기관이 30%이상 부담하고 도입기업은 최대 40%만 부담하게 되어, 도입기업은 비교적 적은 부담으로 지능형공장(스마트공장)을 구축할 수 있다.

유형2는 지능형공장(스마트공장) 도입에 대한 진입장벽을 낮추고자 소기업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기초단계의 소액지원(최대 2천만원) 사업이다.

정부와 주관기관이 각각 50%씩(각각 최대 1천만원) 부담해 도입기업은 별도의 구축비 부담 없이 간이 지능형공장(스마트공장)을 구축할 수 있다.

< 유형별 지원 조건 >

유형 1-(기초/고도화1.2)				유형 2-소기업전용		
구분	정부	대기업	중소중견	구분	정부	대기업
구축비용	30%	70%		구축비용	50%	50%
		30%이상	40%이내			

• 구축비용 : (기초)4.2천만원, (고도화1)1.2억원 (고도화2)2.4억원

* 소기업대상 기초수준 구축 시 2,000만원 내외 지원
→ 정부와대기업이 100% 지원

※ 주관기관에 따라 지원금액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음

'21년에는 삼성, 현대자동차그룹, 엘에스일렉트릭(LS일렉트릭), 포스코 등 대기업 9개사와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전력공사, 한국서부발전 등 23개의 공공기관이 참여해 총 270억원 출연금으로 약 1천개사에 지능형공장(스마트공장) 구축을 지원했다.

그 결과, 제조현장의 생산성과 품질은 개선되고 반대로 원가는 절감되는 등 중소기업의 제조경쟁력이 향상됐으며, 덩달아 고용과 매출이 증가하고 산업재해는 줄어드는 성과도 거뒀다.

지능형공장(스마트공장) 도입을 희망하는 기업은 원하는 주관기관에 따른 일정에 맞춰 스마트공장 1번가(1st.smart-factory.kr)로 신청하면 되고(주관기관별 모집기간은 아래 참고), 해당 사업에 참여 시 유의사항, 세부적인 지원사항 등에 대한 문의는 아래의 연락처*를 통해 가능하다.

* 사업참여 관련 문의 : 중소기업통합콜센터(1357), 삼성-중소기업중앙회(02-2124-4373), 엘지전자(LG전자)-한국생산성본부(02-724-1200), 한국수력원자력, 한전케이디엔(한전KDN), 한전케이피에스(한전KPS), 부산항만공사-표준협회(02-6240-4873)

아울러, 주관기관은 오는 6월까지 지속 모집할 예정이며, 이후 추가된 주관기관들의 지원을 받을 도입기업도 계속 모집해서 올해에는 총 1천개사 이상의 중소기업을 지원할 예정이다.

< 주관기관별 모집 규모 및 일정(1차, 6개사) >

주관기관명(협업기관)	지원 규모	모집 일정	비고
삼성(중기중앙회)	300개사 이상	4.11~5.8	협력사/비협력사
LG전자(생산성본부)	57개사 내외	4.11~5.31	협력사 대상
한국수력원자력(표준협회)	18개사 내외	4월말부터	협력사/비협력사
한전KPS(표준협회)	20개사 내외	5월말부터	협력사/비협력사
부산항만공사(표준협회)	16개사 내외	5월말부터	협력사/비협력사
한전KDN(표준협회)	14개사 내외	5월말부터	협력사/비협력사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중소벤처기업부 제조혁신정책과 홍승한 사무관(☎ 044-204-7252)에게 연락해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1

상생형 스마트공장 지원사업 개요

□ 사업 개요

- (목적) 민간이 협업하면 정부가 후원하는 상생형 스마트공장 구축을 추진하여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및 민간의 자발적 확산체계 마련
- (지원내용) 주관기관(대기업/공공기관 등)이 중소·중견기업과 협력하여 스마트공장을 구축할 경우, 정부가 구축비용의 일부(30%)를 지원
 - * 제품설계·생산공정 개선 등을 위해 IoT, 5G, AI, 빅데이터 등 첨단기술을 적용한 스마트공장 솔루션 구축 및 솔루션 연동 자동화장비·제어기·센서 등 구입 지원

< 유형별 지원 내용 >

구분	유형1			유형2 (소기업 대상)
	기초	고도화1	고도화2(22년신설)	
지원대상	기초 수준 이상	중간1 수준	중간 2 수준	기초 수준 이상
정부지원금 지원규모	최대 4.2천만원 (총사업비의 30%)	최대 1.2억원 (총사업비의 30%)	최대 2.4억원 (총사업비의 30%)	최대 1천만원 (자부담 없음)
지원비율	정부 30%, 주관기관 30%이상, 도입기업 40% 이내			정부 50% 주관기관 50%

□ 지원실적 및 성과

- (실적) ‘18~21년 총 4년간 스마트공장 3,619개사 구축 지원
 - * (‘21년) 총 32개 주관기관이 참여하여, 270억원을 출연, 스마트공장 999개사 구축지원

< 대중소 상생형 스마트공장 참여 기관(‘21년 기준, 가나다순) >

(대기업) 두산, 삼성디스플레이, 삼성전자, 세메스, 포스코, 현대자동차그룹, LG이노텍, LG전자, LS일렉트릭 (공기업/공공기관) 부산항만공사,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울산항만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천항만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가스기술공사, 한국광해광업공단, 한국동서발전, 한국남부발전, 한국서부발전, 한국석유공사,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전력기술, 한국중부발전,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환경공단, 한전KDN, 한전KPS (협업기관) 대한상공회의소, 자동차부품산업진흥재단,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생산성본부, 한국표준협회,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 (성과) 생산성·품질 향상, 고용증대 등 제조경쟁력 향상

생산성(P)	공정개선 성과			경영개선 성과		
	품질(Q)	원가(C)	납기준수(D)	고용	매출액	산업재해
28.5% ↑	42.5% ↑	15.5% ↓	16.4% ↑	2.6명 ↑	7.4% ↑	6.2% ↓

* 상생형을 포함한 스마트공장 사업 전체 성과

참고 2

지원 우수 사례

- **(노하우 확산)** 대기업의 제조기술을 중소기업(협력/비협력사)에 전수함으로써 생산성 향상 및 문제해결 → 상생분위기 선도 및 경쟁력 확보

<p>우수 사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기업 노하우로 매출·고용 증가 (A사) ○ 삼성전자의 제조기술·스마트공장 노하우 전수로 공정품질 개선, 원자재 Loss 감축 및 MES 구축을 통한 실시간 생산 모니터링 구현 → 해외 바이어 신규계약 등 매출 120%↑, 고용 112.5%↑ * (매출) 18억 → 40억 / (고용) 8명 → 17명 	
<p>우수 사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기업과 파트너십으로 난제 해결(B사) ○ 포스코와 '파트너십'을 맺고 '용접설비 연동 헬륨가스 모니터링 개선'을 통한 기업 난제 해결 및 품질 개선 * 헬륨사용 비용 32%↓, 공정불량 감소율 10%↓ 	
<p>우수 사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기업 지원으로 원가절감 및 생산성 향상(C사) ○ LG전자의 구축비용 및 컨설팅 지원을 통한 PCB Ass'y 검사공장 자동화 및 MAC ID 정보화 연계 시스템 구축 → 원가절감, 생산성 15%↑, 매출 7%↑ * (원가) 1억원/年↓, (생산성) 175개/UPH → 200개/UPH 	

- **(K-방역 지원)** 상생형 스마트공장 지원사업은 K-방역 제품의 신속한 생산·공급체계를 구축하여 K방역의 성공에 크게 기여

<p>우수 사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중소 협력으로 생산량 4배↑ (D사) ○ 삼성전자 전문가 30여명을 투입하여 1개월 만에 월 1천만개의 LDS 주사기 및 주사침 생산체계 구축 - 이후 일본, 미국, 인도 등에 3천만개 이상 해외수출, 신공장 준공 등으로 월간 2천만개 대량생산체계 구축 완료 	
<p>우수 사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진단키트 제조기업 현장 애로사항 해결 (E사) ○ 삼성전자 전문가의 제조현장혁신을 통해 시약 구분관리 프로세스 구축, 맞춤형 자동화설비 도입, 시약용기 국산화 등 다품종 소량생산에서 대량생산 체제로 전환 → 생산량 73%↑, 시약용기(국산화) 원가 55%↓ 	
<p>우수 사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중소 협력으로 주사기 이물 공정 개선 (F사) ○ 포스코 제조기술 및 컨설팅 지원으로 이물 혼입 방지 설비 및 인공지능을 활용한 비전검사시스템 도입 → 이물 공정 개선 (공장불량률 ↓, 생산량 ↑) 	